

코로나 극복...화순군, 역대 최대 공공일자리 추진

사업비 82억 투입 113개 사업에 1420명 모집
14일까지 신청 접수...실·폐업 경험 군민 우선

화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화순군은 총 사업비 82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90%인 73억원은 국비로 충당한다. 사업은 정부의 3차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코로나19로 경제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 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방역 지원, 공공 휴식공간 개선, 긴급 공공 업무 지원 등 10개 유형의 공공 일자리사업이 시행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건물은 물론 경로당·터미널·학교 등 공공장소까지 철저히 생활방역을 추진해 코로나19로부터 청정한 화순을 지키고 화순군 전역에 걸쳐 대대적으로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일자리사업 모집 인원은 113개 사업에 1420명이며, 신청 기간은 8일부터 14일까지다.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 능력이 있는 화순군민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

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발은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업·폐업 경험한 군민 등을 우선해서 선발할 예정이나 이외 주민도 후순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함평군의회 의장 김형모 의원

함평군의회는 지난 1일 제260회 임시회를 열어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조선의 더불어민주당 김형모(67·사진) 의원을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3선의 윤영광(59)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에는 허정임(65) 의원이, 일반행정위원장은 정경임(59) 의원이, 경제건설위원장은 김영인(63) 의원이 뽑혔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나주 청년 취·창업 지원 '청년센터' 본격 운영

옛 송월동 행정센터 리모델링
'청년가온마당' 개소식

나주지역 청년들의 '취·창업'과 성장·교류를 지원할 거점 공간인 '나주시 청년센터'가 문을 열었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옛 송월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해 조성한 '청년가온마당' 개소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청년센터는 '청년이 우뚝 서는 나주' 실현을 위한 민선 7기 공약사업이다. 센터 설립을 위해 지난해 5월 2억4000만원을 들여 옛 송월동 행정복지센터(559㎡) 리모델링에 들어가 같은해 12월 준공했다. 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공유주방·가온홀·문화공연장·세미나실·스터디룸·금융 상담실, 2층에는 새싹공방·다목적실 등 청년 교류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됐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만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또는 청년단체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나주시는 청년센터 개소에 맞춰 지역 청년의 취·



나주시는 옛 송월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 청년센터인 '청년가온마당'의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창업 역량 강화와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소규모 교육 강좌로 '청년희망학교'를 운영한다. 교육 대상은 나주지역 거주자 또는 교육기관·사업장에서 활동 중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으로 오는 22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청년희망학교 교육 신청과 센터 이용 예약은 나주시 청년가온마당으로 하면 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농사 짓는 노인 일자리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강진 서문영농사업단 성과

강진지역 노인 20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영농사업단을 꾸려 자신들이 잘하는 농사일을 하며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6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새로 도입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된 '강진 서문영농사업단'이 친환경 채소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서문영농사업단'은 60세 이상 20명의 어르신들로 구성됐으며, 농작물 재배·수확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올해 재배한 작물은 상추, 열무, 들깻잎, 차커리, 고추 등이다. 친환경 농작물로 생산된 채소는 지역 일반식당 5곳(금강산식당, 강남회관, 금두꺼비식당, 다강, 인성극장)에 납품하고 있다. 김병태 서문영농사업단장은 "강진을 송전리 470여 평의 텃밭 비닐하우스는 연중 농작물 수확이 가능하고, 서성리 300여평 텃밭은 서문경로당 근처여서 어르신들이 수시로 다니며 즐겁게 일하



강진 서문영농사업단 구성원들이 텃밭에서 들깻잎을 따고 있다.

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문정자 씨는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잘 하는 일이고, 농작물을 수확하면 뿌듯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서문영농사업단은 올해 전남도가 주관한 '시장형 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3000만원을 지원받아 경로당 창고를 작업장으로 리모델링했다. 이에 생산된 농산물을 작업장에서 선별, 세척해 일반식당과 로컬푸드판매장으로 납품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 황룡우시장 '전자경매' 도입...시간 단축·투명·공정 효과

장성군이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해 황룡우시장에 도입한 최첨단 '전자경매시스템'이 축산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5월 황룡우시장에 최첨단 '전자경매시스템'을 구축, 최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자경매 도입에 따라 경매시간 단축, 거래가격 투명성 확보, 공정성 시비가 사라지면서 지역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을 대표하는 한우 경매시장인 황룡우시장은 1968년에 조성됐다. 4400여㎡에 5동의 계류장과 경매시설, 휴게소, 사무실 등을 갖췄다. 전자경매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가격이 적힌 종이 오가며 경매가 이뤄지던 풍경은 이제 추억 속 옛 모습이 됐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대신 경매에 참여한 개인이나 사업자가 응찰기에 응찰가를 입력한 후 낙찰되면 낙찰자의 이름과 금액, 출하 농가가 전광판에 실시간 표기된다. 그동안 장날에 맞춰 문을 열었던 황룡우시장은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이후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장하고 있다. 새벽 4시로 정해진 개장 시간도 오전 7시로 늦췄다. 코로나19로부터 축산 농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경매 수요가 높은 '송아지 거래'는 매일 둘째·넷째주로 분산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한우경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으로 투명한 유통체계가 구축됨과 동시에 수취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이 황룡우시장에 '최첨단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장성군 제공>

세얼굴

"화합·배려로 살기좋은 강진 만들 것"

이상심 강진부군수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강진, 더욱 살기 좋은 강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이상심(55) 강진부군수는 "다산의 청렴과 애민정신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더불어 행복한 강진 공동체'를 만드는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건강,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



응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완도 출신인 이 부군수는 1985년 목포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전남도 인구정책추진단장·섬해양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군수는 섬, 해양, 관광산업 업무를 두루 거쳐 가우도권 등 강진만 개발과 관광산업 진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



Classical

Mediterranean Sea